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특집



Special project

찾아서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DEMOCRACY
IN
HISTORY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찾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目次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찾아서



- 03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신라의 화백제도
- 06 고구려의 마그나카르타 ‘봉상왕 폐위’
- 08 적장까지 포용한 국민통합의 모범 왕건
- 11 신분제 타파와 평등을 향한
고려 천민들의 염원과 투쟁 (1), (2)
- 16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려의 양성평등 문화
- 19 민본정책과 왕권견제 공약으로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의 정치
- 22 민생을 위한 백년 정책 토론 대동법
- 25 광장민주주의 역사적 기원
구한말 만민공동회
- 28 신분제 타파를 위한 최후의 저항
형평사 운동



발행일 | 2017. 08. 01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기획 | 미디어과
 저자 | 김형민
 구독문의 | 02-507-4351
 ahj0824@korea.kr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신라의 화백제도



만 장일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

삼국사기 신라 본기는 신라의 건국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조선(朝鮮) 유민들이 산곡 사이에 나뉘어 살아 육촌을 이루었다. 첫째는 알천(閼川) 양산촌(楊山村), 둘째는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 셋째는 취산(薺山) 진지촌(珍支村), 간진촌(干珍村)이라 한다. 넷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 다섯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 여섯째는 명

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진한(辰韓)의 6부가 됐다.” 이후 박혁거세가 등장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B.C 57년이라고 했으니 한무제에 의해 고조선의 왕검성이 함락(B.C 108)당하면서 조선의 이름이 끊긴 지 반세기 뒤의 일이었다. 신라의 육촌 사람들이 한무제에 의해 멸망당한 위만조선 출신인지 아니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준왕 등 기자조선의 후예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어쨌든 조선에 뿌리를 두었던

여섯 집단은 다시금 한 나라를 이루어 일어서게 된다. 이씨(양산촌), 최씨(고허촌), 정씨(진지촌), 손씨(대수촌), 배씨(가리촌), 설씨(고야촌) 등 6부의 지배자들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를 왕으로 모셨지만 그들 고유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했다. 중국의 사서인 수서(隋書)는 신라에서는 “국가 중대사를 군신이 함께 모여 상의하여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당서(唐書)에는 이를 ‘화백(和百)’이라 불렀으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부결되는 만장일치제

“
협의를 거친 합의,
타협과 조율 속에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은
세계 역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라의 화백제도 또한
그 예 중의 하나다.”



를 채택했다고 기록돼 있다.

1989년 발 갈던 농부에 의해 발견된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서도 이 화백제도의 어렴풋한 모습이 보인다. 냉수리 비문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신라의 실성왕과 내물왕 두 왕이 진이마촌의 절거리에게 재산 취득을 인정하는 교를 내렸는데 계미년 9월 25일에 지증왕 등 각부의 대표 7명이 함께 논의하여 두 왕의 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별교를 통해 절거리가 죽은 후에는 아우 아사노(또는 아우의 아들 사노)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미추, 사신지는 재물 분배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중죄에 처할 것임을 결정하였고 이 명령은 중앙기관의 전사인 7명과 지방관서의 춘주 2명이 일을 마치고 이 사실을 기록한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즉, 지증왕과 6부의 대표가 모여 재산권 분쟁의 결정을 내렸다는 기록이다. 2009년 냉수리와 가까운 중성리에서 발견된 신라비에도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1988년 발견된 울진 봉평 신라비에는 “524년(법흥왕 11) 모족지매금왕(법흥왕)을 비롯한 14명의 6부 귀족들이 회의를 열어서 어떤 죄를 지은 ‘거벌모라(居伐牟

羅)’와 남미지촌의 주민들을 처벌하고, 지방의 몇몇 지배자들을 곤장 60대와 100대씩 때릴 것”을 판결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신라의 중앙 관제 17관등을 확립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혔던 법흥왕 때에도 6부의 대표들이 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협의에 의한 국가 의사 결정’이라는 대전제가 건국 후 수백 년 동안 유지돼 왔다고나 할까.

유테인들의 경전 탈무드에 따르면 ‘만장일치’는 금지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살인자를 재판하는 재판관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살인자의 무죄를 위해 변론해야 하고, 유죄에서 무죄로 그 뜻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다. 의견이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며 치열한 토론과 반론 속에 진실과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유테인들의 토론관이 반영되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이는 만장일치의 판결보다는 만장일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화백회의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만장일치제’ 그 자체가 아니라 만장일치에 이르는 토론과 협의의 과정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신라 25대 왕 진지왕은 신라를 소백산맥 이남의 소국에서 한반도 중부를 장악하고 고구려와 백제에 맞서는 나라로 끌어올린 영걸 진흥왕의 차남이었다.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쓸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진흥왕이었지만 장자 상속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태자가 일찍 죽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지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별다른 기록 없이 진지왕이 얼마 못 가 죽은 것으로 돼 있으나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이 진지왕이 ‘국인(國人)’ 즉, 나라의 유력자들에 의해 폐위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때에도 화백회의는 열렸을 것이다. 신라의 영걸이라 할 진흥왕의 아들이 ‘음란하고 정치가 어지러워’ 폐위될 때 어찌 논란이 없었을까. 그러나 신라 귀족들의 결정은 진흥왕의 손자 진평왕이었고 진평왕은 53년이라는 신라 최장 재위 기간을 기록하며 삼국통일의 기틀을 닦게 된다.

이후 28대 진덕여왕이 승하하면서 다음 왕을 추대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 골품제 상 최고의 혈통이던 성골의 대가 끊겨 진골 중에서 왕을 뽑아야 했다. 백제의 공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고구려마저 그에 가세한 상황, 백제와 가까운 왜나라는 신라의 맹방일 수 없었던 외교적 고립 상황. 선덕여왕 말년에 일어난 비담의 난 등 내부의 동요도 만만치 않은 위기에 빠져 있던 신라였다.

귀족들의 1차 추천 대상은 알천이라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경주 남산에서 열린 화백회의도 중 호랑이가 뛰어들어 혼비백산한 일이 있었는데 그 꼬리를 잡아 패대기를 쳐 죽여 버렸을 만큼 용감하고도 굳센 용력의 사나이였다. 진평왕 이래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바도 있으니 군사적 정치적 위상도 막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알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늙었고 뚜렷한 덕행도 없다. 지금 덕망이 두텁기로는 춘추공만한 이가 없다. 그는 실로 세상을 다스릴 영걸이 아니겠는가.” 즉, 김춘추를 추천한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나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다. 1차 추천 대상이 알천이었다는 것은 알천을 지지하는 이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김춘추는 화백회의 때 폐위당한 진지왕의 후손이었다. 연륜으로나 벼슬로나 알천은 김춘추보다 상위에 있



었다. 얼마나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을 것인가. 알천의 양보는 알천 개인의 인품 탓도 있었지만 또 다른 외적인 요소도 있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의 지적이다. “알천공이 상좌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러 어른들은 유신공의 위엄에 복종했다.” 신라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유신이 김춘추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천의 양보와 지지, 김유신의 강력한 후원에도 불구하고 김춘추는 세 번 사양을 거치고서야 왕위에 오른다. 중대한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서로의 이익과 의사에 따라 조율을 거치고 힘겨루기도 행해지지만 결국 정치적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한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성골의 대가 끊긴 뒤 진골로는 첫 왕위에 올랐고 폐위된 왕의 후손이라는 약점을 지녔던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었

으나 그 치하에서 신라는 이렇다 할 반란 하나 없는 내부 단결을 이루었고 마침내 숙적 백제를 멸망시키는 역사를 이룩한다. ‘협의에 의한 합의’란 그렇게 힘이 세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민주주의를 근대 이후의 산물로만 인식한다면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는 지극히 짧고 얇은 수준의 단어에 불과하다. 하지만 협의를 거친 합의, 타협과 조율 속에 이루어지는 ‘획일’이 아닌 ‘통일’의 과정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연의 모습은 세계 역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라의 화백제도 또한 그 많은 예 중의 하나일 것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협의를 거친 합의 과정이 왜곡되거나 서로의 야욕이 양보와 배려의 미덕에 앞설 때의 파괴력 역시 신라 하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귀족들 간 벌어진 왕관 다툼은 신라를 병들게 했고 그 와중에 시대에 뒤떨어진 골품제도를 움켜쥐고 있었던 진골들의 나라는 멸망으로 치달았다. 최후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마지막 경순왕은 아들 마의태자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고려에 항복했던 것이다.㉞

역사적인 서류, 대한장
 사자왕이라는 별명이 불을 만큼 용
 맹스러웠고 십자군 전쟁의 지도자
 로 유명한 영국의 리처드 왕이 죽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동생 존이었다. ‘사자’라 불리운 형과
 는 달리 존 왕의 별명은 ‘실지왕(失地王)’이다.
 당시 잉글랜드 국왕은 프랑스 왕보다도 더 많
 은 프랑스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존이 프랑
 스왕 필립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거의 모든
 프랑스 내 영국령을 상실했기 때문에 얻은 별
 명이다. 전쟁에서 진 것도 딱한 일이었지만 존
 왕에게 당혹스러운 상황은 또 있었다. 연속된
 왕의 실지(失地)와 실정(失政)을 보다 못한 귀
 족들이 들고일어나 63개 조 요구사항을 걸고
 존 왕을 압박했던 것이다. 존 왕은 완강히 버텨

보았으나 결국 굴복했고 1215년 6월 15일 귀족
 들이 내민 문서에 옥새를 날인하게 된다. 이 문
 서가 바로 대한장, 즉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
 는 역사적인 서류다.
 이 가운데 핵심은 귀족 회의, 즉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과 ‘자유인’들
 은 정당한 합법적 절차 없이 구속되거나 투옥
 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었다. 즉, 국왕의 전횡과 폭정을 제한하고 법
 에 의거한 통치만이 정당하다는 합의였다. 물
 론 ‘자유인’ 개념에 일반 농민들은 전혀 포함되
 지 않았고 그로 인한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었다.
 즉, 근대적 민주주의 개념에 의거한, 보통 사
 람들을 위한 권리 선언은 아니었다. 그러할지
 라도 이 대한장의 의미는 지대하다. 그 어떤 절

대 권력도 견제 받아야 하며, 권력이 그에 불응
 할 경우 신민(臣民), 또는 국민은 복종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전통의 초석이 되는 문서이기 때
 문이다. 1939년 미국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이
 낡은 양피지 문서를 보겠다고 1주일 동안 무려
 1천 만 명이 긴 줄을 섰던 까닭 역시 거기에 있
 지 않을까.

폭정에 저항한 이들이 뿔어내는 기쁨과 희망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물론 환경
 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 절대 비교는 불가능
 하다. 또 역사적 성취와 전개 방향의 차이도 현
 격한 만큼 “우리나라의 대한장”을 찾는 일은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단, 권력자

의 부당한 횡포에 저항하여 힘을 합쳐 그 폭정
 을 종식시킨 사례는 많다. 그 연원은 삼국 시대
 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은 모두 권력 독
 점을 견제하고 국가 중요 대사를 협의, 결정하
 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다. 고구려의 제가 회
 의, 백제의 정사암 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가 그
 것이다. 흉년이 들거나 재난이 나면 왕을 죽였
 다는 부여의 예에서 보듯, 왕권이 미약하고 부
 족연맹제 성격이 강하던 시대의 단면이기는 하
 나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구조를 보유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일이었다. 고구려에서 일어
 났던 일 하나를 짚어 보자.

고구려 14대 봉상왕은 매우 의심 많고 잔인한
 왕이었다. 그는 즉위한 뒤 자신의 왕권을 위협
 할 수 있는 친족들에게 칼을 들이댔다. 숙신과
 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삼촌 달가에게 누
 명을 씌워서 죽였고 자기 동생 돌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 급기야 그 아들, 즉 조카
 을불마저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으
 니 봉상왕의 친족에 대한 의심의 집요함이 어
 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어엿한 왕족이었
 던 을불은 어느 집의 종으로, 또는 소금 장수로
 신분을 감추고 무진 고생을 해야 했다. 신분이
 드러나면 그대로 죽음일 뿐이었다.

봉상왕 3년(294) 왕은 창조리라는 이를 국상(國
 相), 즉 수상에 임명한다. 그즈음 고구려는 선비
 족의 나라 전연과 분쟁을 치르고 있었다. 몇 년
 간 일진일퇴를 주고받은 끝에 296년 전쟁이 마
 무리된다. 그러자 봉상왕은 특유의 허영을 드러
 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대규모 궁궐 증축 공
 사를 일으킨 것이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은 허
 를 빼물 지경이었다. 그러나 봉상왕은 백성들의
 불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국
 상 창조리가 봉상왕에게 이리시면 안 된다고 충
 언하자 봉상왕은 이렇게 반문한다.

“임금은 백성들로부터 우리름을 받는 이인데,
 궁궐이 초라하면 무엇으로 위엄이 서겠는가?”
 그러고는 창조리에게 묘한 말을 한다.
 “지금 나를 비방하여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
 겠다는 것인가?”

영국의 존 왕이 국내 귀족들의 만류에도 무릅
 쓰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다가 판판이 져음
 에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계
 속하려했던 것처럼, 봉상왕의 궁궐 집착도 대
 단했다. 그러나 국상 창조리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봉상왕 앞에서 창조리는 공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임금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진 임
 금이 아니요, 신하가 임금에게 충언하지 않으
 면 충신이 아닙니다.” 이 충성스러우나 도전적
 이기도 한 말을 들으며 봉상왕은 ‘웃었다’고 기
 록돼 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다.

“백성을 위해서 죽기라도 하겠소?” 이 말을 듣
 고서야 창조리도 더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그 어떤 절대 권력도 견제
 받아야 하며, 권력이 그에
 불응할 경우 국민은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다. 은밀히 자신
 의 세력을 규합하고, 시골로 도망가 숨어버린
 왕의 조카 을불을 찾아 데려오는 등 만반의 준
 비를 한다. 아마 그가 사람을 모을 때 가장 많
 이 속삭인 얘기는 아마도 마그나카르타를 준
 비하던 영국 귀족들이 하던 말과 비슷했을 것
 이다. “왕이 백성을 살피지 않으면 그게 왕인
 가. 왕이 제멋대로만 하면 나라꼴이 되겠는가.”
 정도가 아니었을지.

마침내 때가 왔다. 봉상왕이 신하들과 함께 사
 냥을 떠났다. 여기에는 국상 창조리도 동행했
 고 고구려 5부의 고위 관리와 귀족들도 당연히
 집결해 있었다. 왕이 사냥에 정신 팔린 틈을 타
 서 창조리는 사람들을 은밀히 모은다. 5부 귀
 족들이 긴장한 얼굴로 창조리를 주시하는 가
 운데 창조리는 결연하게 선언한다.

“나와 뜻을 같이하는 자는 관에 갈일을 꾀으
 시오.”

사냥터였으니 다들 무장을 했을 것이고 고구
 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절풍 모자를 쓰고 있
 었을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저마다 관에 갈일
 을 꾀고 서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서로의 관
 에 꽂힌 갈일을 보고 전율했을 것이다.

“그래. 우리 전부 갈일을 꾀었으니 무엇이 두
 려우랴. 폭군을 물리치자.” 고구려판 ‘마그나
 카르타’ 사태는 그렇게 진행됐다. 창조리는 국
 왕 폐위를 선언하고 왕의 조카 을불에게 옥새
 를 바치니 이 사람이 고구려 15대 왕 미천왕이
 었다.

역사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에너지 중의 하나
 는 폭정에 저항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이들
 이 뿔어내는 기쁨과 희망이다. 봉상왕의 폭정
 을 극복하고 국상 창조리 이하 신하들의 추대
 로 왕위에 오른 미천왕은 낙랑군을 완전히 축
 출하여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수백 년간 드리
 워졌던 중국 세력을 끝내 몰아낸 역사적 인물
 로 남는다. 독재를 일삼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궁궐 공사에 백성들을 쓸어넣고 국상과의 소
 통도 거부하던 봉상왕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이었다. ㉞





적장까지 포용한 국민통합의 모범 왕건



고려 왕조의 시작
최씨는 신라 6부 중 하나인 고허촌의 지배 씨족이었다. 그러나 박, 석, 김씨가 왕위를 둘러가며 차지하고 특히 김씨는 중심으로 한 골품 제도가 확립되면서 최씨는 신라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되고 말았다. 고운 최치원이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떠난 것은 신라가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당나라에서 지은 유명한 시 ‘추야우중(秋夜雨中)’을 되새겨 보자.
“秋風唯苦吟,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니 世路少知音,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네 窓外三更雨, 창밖엔 밤늦게 비 내리고 燈前萬里心, 등 앞에서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알아주는 이 없어서 당나라로 왔으나 대륙은 더 넓고 사람은 많았다. 공부하느라 눈은 빠지

고 밤은 깊은데 등불 앞에서 고향 생각은 더욱 간절했던 것이다. 그래도 당나라에는 희망이 있었다. 당나라 사람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과거 제도를 통해 입신할 수 있는 반공과(寶貢科)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최치원 뿐이라. 신라 말 3최라 일컬어지는 최지원, 최승우를 비롯하여 당나라 인근에서는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로 향했다. 신라는 ‘출세의 사다리’가 초저녁에 사라지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인재들은 소외되는 가운데 김씨들만 배부른 ‘헬신라’였다. 당나라에서 벼슬하고 ‘토황소격문’으로 천하에 이름을 드날린 최치원이었지만 신라에 금의환향해서 그다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6두품의 신분으로서는 하늘이 닿게 올라가야 17관등 중 여섯 번째인 아찬이 한계였다. 그 위로는 진골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왕관에 대한 진골들의 탐욕이 폭발하여 특하면 왕들이 칼에 맞아 죽고 새 왕이 등극하기 일췌인 혼란기, 그 왕위 쟁탈전에 끼어들었던 해상왕 장보고가 왕가와 사돈 맺기를 꿈꾸다가 피살당하고 그 세력 기반이었던 청해진 자체가 소멸됐던 사실은 신라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똑똑히 알려 준다. 이런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신라 중앙 정권이 쇠약해지면서 각지의 호족들은 반기를 들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고 농민 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급기야 신라는 진흥왕 이전의 신라 영역, 즉 서라벌 일원의 소국으로 쪼그라 들었고 한반도는 우리 역사상 보기 드문 군웅할거의 전국 시대로 화하고 말았다. 북원(오늘날 강원도 원주)의 양길, 죽주(오늘날 경기도 죽산)의 기원, 무진주(오늘날 광주광역시)의 견훤, 기원과 양길을 거쳐 강원도 철원에 터를 잡은 궁예, 견훤의 아버지이지만 사이가 나뉘었던 경북 상주 지역 호족 아자개, 강릉 지역의 큰 세력가였던 김순식 등 사서에 등장하는 유력한 인물들만 수십에 달하고 실제로는 수백인지 그 이상인지 모를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고 자신의 깃발을 각지에 꽂

았다. 이 전국 시대는 차츰 후백제의 견훤, 태봉의 궁예, 옛 신라로 정리되니 곧 후삼국 시대다. 한반도 중부지역을 장악한 궁예에 항복했던 개성 지역의 해상 세력 호족 왕룡에게는 왕건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영특하고 군사(軍事)에 밝았던 왕건은 태봉의 왕 궁예의 핵심 장수로서 활약하지만 오만과 독선에 빠진 왕 궁예가 폭정을 일삼자 이에 반기를 들고 왕위를 차지했다. 이후 500여 년 한반도를 지배하는 고려 왕조의 시작이었다.

자신을 낮추는 일

태조 왕건은 우리 역사에서 여러모로 독보적인 위인이다. 그는 후삼국에서 군사적 재능이 가장 뛰어났다 할 후백제의 견훤과 일진일퇴를 거듭할 만큼 유능한 인물이었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궁예의 뒤를 이었으나 그의 진짜 장기는 다른 데에 있었다.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낮춰 적을 감복시키고 불만을 누그러뜨렸다. 힘이 강하다고 해서 상대를 모욕하지 않았고 사생결단을 벌였던 상대라고 해도

“

태조왕건은 우리 역사에서 여러모로 독보적인 위인이다. 그의 진짜 장기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다. 힘이 강하다고 해서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사생결단을 벌인 상대라 해도 적개심을 앞세우지 않았다.

적개심을 앞세우지 않았다. 자신이 몰아낸 옛 군주 궁예에 충성을 맹세하며 왕건과의 일전불사를 선언한 강릉 지역 호족 김순식을 상대할 때에도, 혼란의 원흉이자 예로부터 쌓여 온 모순덩어리 나라라 할 신라에 대해서도, 배신이 밥 먹듯 벌어지던 후삼국 혼란기, 갈대같이 지지 세력을 바꾸던 각 지역의 호족들에게도 끊임없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왕건 자신의 상품화라 할 결혼 정책이었다. 왕후만 여섯 명에 후궁은 23





명, 무려 29명과 혼인했던 것이다. 이유는 이 어마어마한 왕비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된다. 황해도 서흥, 신천, 평산, 경기도 개풍, 강원도 강릉, 충청북도 충주, 진천, 충청남도 홍성 등등 왕비들은 후삼국 시대의 주요 호족들의 거점 출신이었다. 왕건은 이 결혼들을 통해 그들의 사위가 됐고 분쟁의 소지를 줄여 가장 적은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일궈 냈다.



가능한 일이었을까? 왕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 아니면 모두 멸망시켜야 할 적”이라는 대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관용과 타협을 앞세우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알았던 왕건의 미덕을 알았기에 후백제의 제왕이었던 견훤은 왕건에게 투항했던 것이다. 왕건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형제와 같았던 부하들을 죽였고 자신의 목숨도 위협했던 왕년의 호적수 견훤에게 왕건은 ‘상부’(尙父)라 부르며 직위를 백관의 위에 두었다. 우리 역사에 이런 통큰 포용력을 발휘한 리더는 찾아보기 어렵다. 후삼국 마지막 대전(大戰)이라 할 일리천 전투에서 백발의 견훤이 고려군의 선봉에서 말을 달리는 것을 보고 후백제군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자칫하면 끝없는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생지옥으로 변할 수 있었던 한반

도는 왕건의 포용 정책과 관대한 배려 속에 다시 하나의 정치적 울타리로 묶일 수 있었다. 진골 귀족들의 권력과 부의 독점이 신라 사회를 뿌리로부터 흔들었던 신라 말, 군사적 천재 궁예가 펼친 공포 정치와 백전노장 견훤이 보여 준 모습, 즉 신라 경애왕을 자살하게 하고 그 왕비를 겁탈했던 잔인함을 돌이켜 보자. 그리고 정치적 카리스마나 군사적 능력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왕건이 펼치고 드러냈던 포용과 배려를 대비해 보자.

포용과 배려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으로부터 벗어나고 “나와 적대하는 자들은 없애 버려야 한다”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관용의 힘은 어찌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태조 왕건은 아마 천여 년 뒤 후손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있는지도 모른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만 싸우더라도 피를 덜 흘려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함께 이기는 일이며, 승자라 하더라도 패자를 돌아보아야 하고 승자 혼자 다 먹겠다고 덤벼서는 안 된다. 왕이 지배했던 나의 시대에도 그러했거늘, 백성이 주인이라는 너희 대에서야



신분제 타파와 평등을 향한 고려

천민들의 염원과 투쟁(1)



치솟은 봉기의 불길

대전 서구 탄방동에 가면 20미터 높이의 기념탑이 있고 탑 앞에는 한 손에는 죽창을 들고 오른 손을 하늘로 치켜든 이를 비롯해 비장한 표정의 동상들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이 탑이 무엇을 기념하며 탑 앞의 동상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들으면 열에 일곱 여덟은 고개를 갸웃하며 이맛살을 쯤힐 것이다. 이 탑의 이름은 ‘명학소 민중봉기 기념탑’이다. 그리고 명학소 민중봉기는 고려 명종 6년(1176) 1월 공주 명학소에서 망야망소가 형제의 주도하에 일어났다.

명학은 지명이지만 소(所)는 향(鄕), 부곡(郿曲)과 함께 삼국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존재했던 특수 행정 구역이었다. 반역자나 전쟁 포로, 귀화인 등 천민들의 집단 거주지이거나 거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 은, 철, 구리, 솥 등의 제작을 전담시켰던 곳을 의미한다. 이곳 거주민들에게는 많은 차별이 존재했다. 보통의 양민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

고, 과거 응시 자격이 제한됐으며 승려가 될 수도 없었다. 신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신라 시대에 약 785개의 향, 소, 부곡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줄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고려의 지방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명학소도 그 중의 하나였다. 대전이라는 도시는 20세기에 들어서 생겼으니, 명학소는 근세 이전의 충청도 지역의 중심 도시 공주 인근에 있어 공주 명학소라 불렀고 철(鐵)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었다. 12세기 말, 고려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무신의 난(1170)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나 무신들의 탐욕도 이전의 문벌 귀족과 문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농민들과 향, 소, 부곡의 천민들은 여전한 경제적 착취와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시달렸다. 한편 서경(평양)에서는 1174년 조위충이 무신 정권 타도의 기치를 든 이래 일진일퇴의 내전이 벌어졌다. 중앙 정부의 관심과 역량이 북쪽으로 쏠린 상황, 관리들의 성화와 채근에 허리가 휘도록 철을 만들어내던 명학소에서 봉기의 불길이 솟았다(1176). 주도

자는 망이와 망소이 형제였다.

반란 소식에 접한 조정은 일단 회유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정규군 3천 명을 출동시켜 반란 진압을 시도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망이 망소이의 반란군은 이 정규군과의 격돌에서 승리하고 오늘날의 충남 일대를 장악해 버린다. 놀란 조정은 재차 군대를 투입하는 한편 명학소를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하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망이와 망소이를 달래는 한편 조위총의 난이 진압된 뒤 한층 강화된 진압군을 내려보내 소탕전을 폈다. 결국 망이와 망소이는 조정에 항복한다. 조정은 약속대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되레 곡식을 주어 돌려보내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속임수였다. 고향에 돌아간지 한 달도 안돼 망이는 무리를 모아 사찰을 불태우고 재봉기한다. 이때 개경에 보낸 편지가 기록에 남아 있다.

“조정은 이미 우리 마을의 격을 올려서 현(縣)으로 삼고, 또 수령을 두어 안무(安撫)했는데, 돌이켜 다시 군사를 내어 와서 토벌해 내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 들어 얹어매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차라리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은 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왕경에 이른 뒤에야 그칠 것이다.(既升我鄉爲縣 又置守以撫 旋復發兵來討 收繫我母妻 其意安在 寧死於鋒刀 下終不爲降虜 必至王京)”

아마도 조정은 겉으로 망이를 고이 놓아 주는 듯 했으나 망이의 아내와 어머니를 체포하는 등 뒤통수를 쳤던 모양이다. 망이로서는 이 자체가 격분할 일이었지만 망이의 분노의 핵심은 편지의 앞에 있다. “우리 마을의 격을 올려 향으로 삼았고 수령을 두어 안심시키고 달래는가 싶더니!” 즉 반란군의 기세를 누그러뜨린 결정적인 회유는 천민 집단 거주 지역으로서의 소(所)를 폐지하고 정식으로 수령이 와서 통치하는 현(縣)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향, 소, 부곡민으로서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수령의 공식적 통치를 받는 양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 단순한 기쁨이 정규군을

『』

인간의 역사는 보다 더
평등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투쟁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격파 할 만큼 강력했던 봉기의 예봉을 누그러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조정은 그들을 배신했다. 망이의 재봉기가 전해지자 조정은 즉각 충순현을 다시 ‘명학소’로 떨어뜨리고 강력한 토벌 작전을 편다. 한때 청주 아산 일대를 장악했던 반란군은 끝내 패하고 망이와 망소이가 항복함으로써 1년 반의 봉기는 막을 내렸다.(1877)

자유를 누리기 위한 투쟁의 역사

“이들 천민들이 반란을 도모한 것은 천민신분에서 벗어나는 한편 지배계층의 수탈과 횡포를 저지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반란은 고려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스스로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고자 일으킨 신분해방운동이었던 것이다.”(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박영규 저, 들녘 출판사) 이들의 봉기는 계속되는 천민들의 항쟁으로 이어진다. 전주 관노의 난, 김사미와 효심의 난 등 계속되던 하층민들의 반란은 고려 개경 한복판에서 치솟은 권력자 최충헌의 노비 만적의 외침으로 이어진다. 세계사에는 수많은 노예와

천민들의 신분 해방 투쟁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의 절절한 연설과 선동이 전해지지만 만적이 동료 노비들에게 내지른 외침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고 호소력이 넘친다. “정중부의 난 이래 나라의 공경대부(公卿大夫)는 우리네 노비 같은 사람들 중에도 많이 나왔다.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인의 매질 밑에 고통 받으며 살 것인가. 최충헌을 비롯하여 각기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 질러 이 나라를 노비 없는 나라로 만들자.” 이 말을 들으며 노비들은 얼마나 환호했을까. 눈물 흘리고 주먹 부르짖며 자신들의 몸을 칭칭 감고 있던 노비의 신분을 저주했을까.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한 이래 인간의 역사는 불평등의 역사였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보다 더 평등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투쟁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노예들은 식사술을 끊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가난한 농민들은 허리를 휘게 하는 세금에 반대하여 쟁기와 가래를 쳐들었으며 천민들은 자식들에게는 그 신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발버둥쳤던 것이다. 기세등등하게 일어났던 망이와 망소이가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간 이유고, 조정이 이를 배신할 기미가 보이자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일어난 까닭이다. 만적이 부르짖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의 외침은 만적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중국 고대 진나라 때의 농민 반란군으로 한때 나라를 세우기도 했던 진승(陳勝)의 말이었다. 그렇듯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는 인간의 역사는 천년을 사이고 이어진다. 그 역사는 봉건의 역사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역사에 얼마든지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중기 천민들의 치열한 항쟁이 떨어진 뒤 점차 향소 부곡이라는 천민 집단 거주지는 급속도로 줄었고 조선 태종 때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는 어진 임금들의 선정의 때문이 아니었다.㉞



신분제 타파와 평등을 향한 고려 천민들의 염원과 투쟁(2)

기득권만을 위한 비겁한 도피

어느 국가 교과서에는 몽골의 고려 침략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집권자인 최우는 몽고의 무리한 조공 요구와 간섭에 반발하여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에 몽고가 다시 침입해 왔으나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장수 살리타가 김윤후에게 사살되자 퇴각하고 말았다. 이후 고려는 여러 차례의 몽고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냈다. 강화도의 고려 정부는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키고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그러나 이 서술은 여러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최우는 ‘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게 아니라 최씨 정권의 유지를 위해 강화도에 들어앉았던 것이었다. 즉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강화도라는 요새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도피였다. 그러면서 최씨 정권은 사실



상 본토의 방위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켰다고 하지만 정부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거쳐 이쪽의 모든 자원을 탈탈 털어 방어 진지로 옮긴, 즉 청야전술(淸野戰術)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산성으로 가든가 섬으로 가라”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치였다. 1253년 몽골군은 5차 침입을 감행해 온다. 몽골의 공격 루트는 두 방향이었다. 서북 지역을 휩쓸고 내려오는 종래의 경로 외에 동북면으로 남하하여 강원도, 경기도 내륙 지방을 속발으로 만들었다. 이윽고 몽골군은 오늘날 중부 내륙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남하하는데 몽골군에 저항했던 강원도 춘천, 철원의 최후를 들은 양평과 천룡(충북 중원) 백성과 군사들은 저항을 포기한다. 몽골제국의 군대는 이들을 화살받이 삼아 앞장세우고 의기양양 남하한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충주였다. 충주성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얹혀 있었다. 20년 전 몽골의 1차 침입 때 충주성은 몽골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양반들은 다 도망가



고 노비와 평민들만이 남아서 몽골군을 물리치는데 도망갔던 양반들이 돌아와서는 은근 없어졌다고 기껏 몽골군을 물리친 노비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통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고 결국 정부군에게 진압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몽골군에게 쓴맛을 안긴 곳이면서도 고려 상류층의 ‘모럴 해저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던 지역인 셈이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양반들은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서 남한강을 타고 영월 정선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거나 새재 넘어 경상도로 피해 버렸다. 남은 건 또 오갈 데 없는 노비와 천민들 중심의 민병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지휘관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다. 바로 20년 전 오늘날의 경기도 용인의 처인성에서 몽골 침략군 사령관 살리타이를 활로 쏘아 죽였던 김윤후가 충주에 와 있었던 것이다.

승려 출신인 그는 양반들보다는 오히려 천민들과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살리타이가 죽임을 당한 처인성은 원래 처인부곡이라는 천민들의 주거지였고 성이라고 한들 오늘날의 축구장보다도 좁은 토성이었다. 김윤후는 그 좁은 성에서 천민들을 이끌고 농성을 준비하다가 살리타이라는 대어를 낚았던 것이다. 몽골군은 살리타이 사후 갈팡질팡 오락가락 면모를 보이면서 황망히 철수했다. 거의 김윤후 혼자서 몽골군을 무찌른 셈이었다. 그런데 김윤후는 입이 합지박만 하게 벌어져서 상과 벼슬을 내리려는 조정에 대고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살리타이를 죽일 때 활을 든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이 없는데 상을 받겠습니까?” 이는 김윤후의 겸손한 성품을 말해 주기도 하지만 그가 공을 돌리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대상은 바로 처인부곡의 천민들이었다. 조정에 의해 천민들의 집단 거주지역이었던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된다. 즉 천민들이 면천하여 양민이 된 것이다.

“오늘부로 처인부곡의 처인현임과 부곡 천민들의 면천을 선언하노라.” 아마 처인부곡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다. 김윤



후는 양민의 지위를 받아든 부곡민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기뻐하는지, 얼마나 그 신분의 딱지에 한이 맺혔는지를 절실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그는 충주성의 방호 별감이 됐고 또 한 번 천민들을 이끌고 몽골군의 대군과 맞서게 됐다.

인류가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자유

이미 충주는 고립된 성이었다. 심지어 경상도 성주의 유력자가 소백산맥을 넘어 몽골군에 투항하고 있으니 이미 충주 주변은 몽골군의 세력권이었다고 봐야 했다. 1253년 10월, 몽골

군이 충주산성을 포위하고 사다리를 성벽에 걸치면서 70일에 걸친 공방전이 시작된다. 정규군은 커녕 천민 일색의 고려군이었지만 몽골군이 혀를 내두를 만큼 악착같이 싸운다. 하지만 식량의 부족과 기나긴 싸움은 점차 고려군의 힘을 소진시켰다. 몽골군이 성벽에 올라서는 일이 잦아졌고 화살과 돌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정신없이 싸우는 와중에서도 충주성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끝’이라는 글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윤후가 내린 특단의 조치.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어느 날 김윤후는 성 안의 천민과 노비들을 불러 모은다.

끓주리고 기진맥진한 천민들은 김윤후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철퍼덕 철퍼덕 주저앉았다. 그러나 김윤후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뭔가를 잔뜩 들고 나왔을 때 천민들, 특히 노비들의 눈은 커졌다. 그것은 노비 문서를 비롯한 부곡민들의 천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 이마를 두르는 천형처럼, 발목을 잡아챌 족쇄처럼 자신들의 부모와 자신과 자신들의 자식의 이름과 인생을 결박한 문서.

김윤후는 외친다. “똑똑히 보아라. 이 노비문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너희는 오늘부로 양민이다. 이 성을 지킨 뒤 문하시중도 되고 병마사도 될

갈등이나 전투,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왜 싸워야 하는지의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드리운 불평등과 억압을 철폐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자유’라고 한다면 자유는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걸고 펼쳐 일어서게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어느 위협이나 공포보다도, 억압과 명령 앞에서보다 인간은 자유를 목전에 둘 때 가장 용감해진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싸울 때 가장 존엄해진다. 세계 제국 몽골에 맞선 충주성 전투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다.㉞



수 있는 양민!” 그리고 노비문서에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윤후는 20년 전 처인성에서 그 에너지를 보았었다. 운명에 귀속된 인간들이 그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어떤 힘을 내고 어떤 힘을 얻는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날름거리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노비 문서가 스러지는 것을 본 노비들은 함성인지 비명인지 모를 악을 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 앞에서 물구나무를 하고 춤을 추고 대굴대굴 굴렀다.

신분의 굴레에서 해방된 인간들의 힘은 끝내 대제국 몽골의 공격을 물리친다. 김윤후가 천민들에게 제공한 건 신분의 해방이면서 곧 그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였다.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이나 전투,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려의 양성평등 문화



여성의 지위와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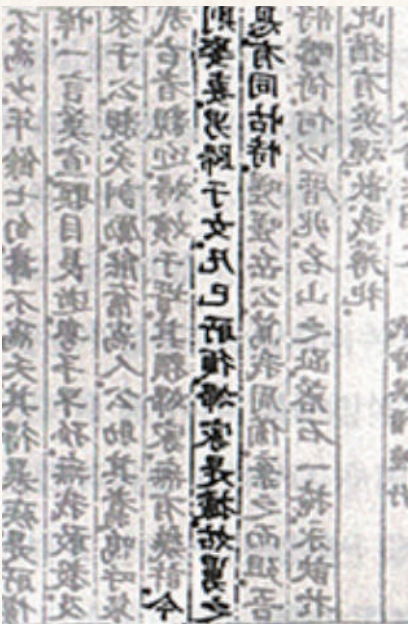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을 전통(傳統)이라 한다. 그러나 전통이란 이런 훌륭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자극히 애매한 단어다. 일단 지난 시대라는 서두부터 모호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과 일상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전통들도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오르면 그 연원이 의외로 짧고 역사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선 전혀 낯선 전통들도 즐비하게 존재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다못해 우리가 접하는 전통적인 밥상만 봐도 그렇다.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반찬이 드물고 양념 짭짤 김치가 없으면 도무지 밥 먹는 기분이 나지 않는 한국인이지만 고추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길어야 400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추는 고추 이전의 한국 음식 문화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한국인의 밥상을 평정해 버렸다. 조선 전기 사람들만 해도 우리가 먹는 김치를 보면 서양인들처럼 코를 찌뚱였을지 모른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어디 그뿐이라. 김, 이, 박 세 성씨만 합쳐도 2천 만에 육박하는 판에 ‘동성동본 금혼’의 전통이 21세기에까지 이어졌던 대한민국 후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고려 시대 사람들은 “뭐 그런 나라가 있나”라며 코웃음을 칠 것이다. 고려는 왕실에서부터 근친혼이 성행하던 나라였고 중기 이후 유교의 영향으로 근친혼간 태어난 자식들에게 벼슬길을 막는 등 강경책을 동원해서도 쉽사리 근친혼의 전통을 근절하지 못했

던 것이다. 이렇듯 시대를 초월한 전통이란 성립이 불가능하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통이란 끊임없이 온고지신(溫故知新) 즉, 옛 것의 좋은 점을 수용하되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여야지 무조건 고수돼야 하고 혹여 변화하면 큰일이라도 날 듯 경기를 일으키는 인습(因習)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전통’으로 착각해 온 ‘인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여성의 지위와 인권 문제였다. 요즘은 그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해괴한 구호가 상징하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인습은 수많은 폐해를 낳으면서도 끈질기게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 예를 일일이 드는 것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겠으나 마치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남존여비의 풍속들은 사실상 5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또 듣기는 했으나 전혀 익숙지 않은 문화에 불과했음은 기억해 두자. 임진왜란 전만 해도 완강한 유교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지위는 비교적 평등했고 사대부들도 장가들면 대개 처가살이를 했다. 울곡 이이는 외가였던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고 그 뒤로 한참 동안 외가에서 자랐고 어머니 신사임당이 시택에 정착한 것은 결혼한지 19년이 지났을 때였다. 재산도 남녀 균등하게 상속했고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경우도 흔했다. 당시로는 이것이 전통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조선 중기 이후 강화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와 연륜을 지닌 전통이기도 했다. 고려 시대 이후 한반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오늘날보다 평등한 고려 시대 남녀의 지위
고려 시대 남녀의 지위는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평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여성계가 수십 년 동안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2005년이었지만 고려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호주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재산권이나 상속권을 행사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중국은 딸을 배제하고 아들끼리 재산을 나눠가진 반면, 고려에서는 남녀 균등 상속이 원칙이었다.

12세기 고려의 명신 손변이 경상도 안찰사로 내려갔을 때 재미있는 송사가 벌어졌다. 남매간의 송사였다.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반면 어린 아들에게는 “검은 옷 한 벌, 검은 관 한개,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장만 주어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 문제였다. 당연히 누이는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후 성인이 된 남동생은 억울했다.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대제 뭇니까. 유언이라도 해도 너무 합니다”라고 울먹였고 누이는 아버지의 뜻을 내밀었다. 인정상으로는 재산을 나누는 게 옳지만 워낙 확실한 고인의 유언이 있는 터라 이전의 수령들도 해결하지 못한 골치거리였는데 손변은 멋지게 송사를 해결했다. “어린아이가 의지할 사람은 누이였으니 만일 누이와 고르게 재산을 물려주면 동생의 양육을 소홀히 할까 아버지는 걱정하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자라면 이 종이에 그 사정을 적어서 물려준 옷과 갓을 쓰고 신발을 신고 관아에 알리면 잘 처리하여 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 네 가지 물건만을 물려준 뜻이



여기에 있음이다.” 남매는 판결에 복종하여 화해하고 돌아갔다. 이 일화에서 보듯 고려 시대에는 여자라고 해서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보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이후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우면 파위’를 선보이기도 했다.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충렬왕 때 재산 박유는 어느 날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아뢴다.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신분이 높은 낮은 처를 하나 두는 데 그치고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들도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서첩(庶娼)을 두게 하되, 벼슬에 맞게 그 수를 조절하고 서인(庶人-평민)은 한 명의 처와 한 명의 첩을 얻도록 하고, 그 소생 자녀는 적자와 마찬가지로 벼슬살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당시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과 일본 원정 등으로 인구가 격감해 있었고 특히 여초(女超)현상이 심각했던 것 같다. 박유는 나름의 해결책으로 일부다처제의 합리화 내지 법제화를 제안한 것이고, 실제 이슬람교 성립 당시 무하마드가 4년까지 아내를 두도록 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고 전쟁으로 남자의 90%가 죽었던 남미 파라과이에서도 일부다처가 암암리에 허용된 역사도 있다. 그러나 고려 시대 여성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도성 안 모든 부녀자들이 분개했으며 국왕의 연등행사 행차 중 박유를 발견한 한 노파가 “저 늙은이가 첩을 두자고 한 놈이다.”라고 부르짖자 못 여인들이 몰려들어 샷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일도 있었다. “이 늙은 거지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라.” 그 뿐이 아니었다. 사회적 차별과 제도의 한계는 있었지만 남편들은 대개 호랑이보다 마누라가 무서운 법이다. ‘재상 가운데 아내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어’ 결국 박유의 논의는 중지됐다. 여성들의 단결 투쟁이 축첩 제도의 합법화를 저지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재산상의 유무나 권력의 소유 여부, 학력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녀 간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매우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확립돼 왔던 것이다. 법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오늘날조차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 구조와 인습의 자장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회사 직원이 외조부상을 당했는데 휴가 일수부터 부조금에 이르기까지 친조부에 비해 확연히 차별적인 사규에 직면하여 놀라워한 적이 있다. 아마 이 얘기를 고려인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은 필쩍 뛰며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아니 조부나 외조부나 뭐가 다르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고려인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 박유에게 별떼같이 달려들어 “이 늙은 거지야!”를 노호하던 고려 여성들이라면 아마 우리에게도 거칠게 소리칠지도 모르겠다. “이 멍청한 후손들이!”㉔



민본정책과 왕권전제 공약으로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의 정치

능력 있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꾼 정도전
단양팔경의 제1경은 남한강변에 우뚝 솟은 세 바위, 도담삼봉이다. 이곳을 들르거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이 도담삼봉에 감명 받아 자신의 호를 만들어 썼다는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다. 정도전은 이 단양에서 죽령 넘어 동남쪽 영주 출신이다. 하지만 삼봉이라는 호 때문인지 그는 충청도 단양 태생으로 온 위되기도 하고 도담삼봉에도 총명한 소년 정도전의 전설이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도담삼봉은 원래 강원도 정선 땅에 있었다. 그런데 남한강에 홍수가 나서 정

선에 있던 세 바위가 떠내려 오다가 지금의 단양 자리에 멈춰 버린 것이었다. 이는 단양 사람들에게 낭패였다. 원래 세 바위의 소유주였던 정선 고을 사포가 단양에 사람을 보내 세 바위를 내라고 으바지른 것이다. 단양 사람들은 꿈쩍없이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한 영특한 소년이 등장한다. 바로 그가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은 정선에서 세금을 거두러 온 이에게 호통을 친다. “저 눈에 거슬리는 바위 때문에 우리도 아주 골치요. 세금을 거두지 말고 그냥 다시 가져가시오. 어서!” 바위를 옮길 도리가 없었던 정선 고을 사포는 더 이상 세금을 강요하지 못했고 도담삼봉은 단양의 으뜸 경치로 남게 됐



다는 것이다.

이 전설 속 영특한 소년 정도전. 그는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풍운아였다. 기울어가는 왕조에 태어나 사회적 모순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구체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고민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힘을 구하고 틀을 만들었던 정치가이자 혁명가였다고나 할까.

정도전은 공민왕 9년(1360)에 과거에 급제했고 이후 관직에 나아갔다. 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권세 가진 이들에게 유순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맘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다. 이른바 모란 돌이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 이인임 같은 당대의 권력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그는 오늘날 전남 나주 부군의 거평 부곡으로 유배된다. 극도의 가난과 절망에 허덕인 귀

『』

정도전은 구체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고민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힘을 구하고 틀을 만든 정치가이자 혁명가였다.

양살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그때껏 깨닫지 못했던 백성 즉, 민(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 일자무식 농투성이 백성들이 어설픈 선비들보다 더 삶의 지혜에 밝다는 사실, 그들에 의해 지탱되는 나라와 임금과 권세가들이 그들을 악랄하게 깔아뭉개고 있다는 모순을 새삼 발견했고,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다.(삼봉집)'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10여 년의 귀양과 낭인 생활을 거치면서 고려 왕조에 충성하던 유학자 정도전은 백성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체제를 꿈꾸는 정치가로 거듭난다.

땅 파고 곡식 심어 수확하며 살아가던 농민이

국민의 태반이었던 고려에서 토지 제도는 경제의 근간이자 착취의 본산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엽 이 토지 제도는 견잡을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 '토지제도가 무너지면서 세력 있고 강한 자는 남의 토지를 겸병해서 농토가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가난한 자는 송곳 꽃을 땅도 없게 되었다.(조선경국전)'는 토로는 그의 문제의식의 출발 지점이자 핵심이 된다. 다시 관직에 오른 이후 정도전은 열정적으로 토지 개혁 추진에 나선다. 그의 생각은 '계민수전(計民受田)'으로 수렴된다. 모든 땅을 국유로 하고 '백성들을 해아려 그 식구 수대로 땅을 분배한다'는 쉽고도 분명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도 그렇고 심지어 21세기의 지구상에서도 이상적일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토지의 사유를 인정할 경우 토지가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 한쪽에서는 지주 한 사람이 만 명의 양식을 독점하고 또 한쪽에서는 한 패기 땅이 없어 유랑길식하거나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는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었다.(정도전을 위한 변명, 휴머니스트, 조유식) 요즘 말로 하자면 정도전의 생각은 '토지 공개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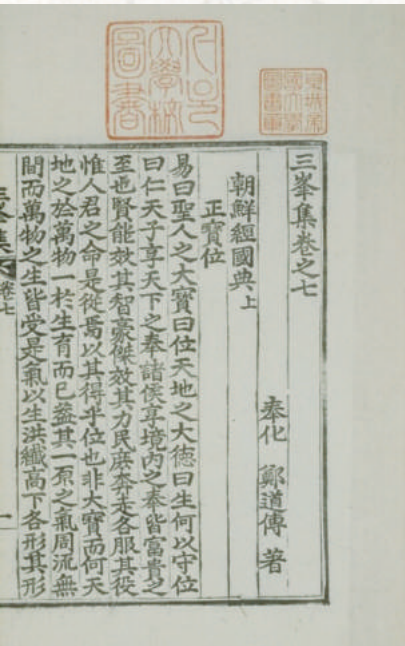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1366년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내세워 권세가들에게 빼앗긴 땅을 돌려주고 노비가 된 이들을 양민으로 돌리는 개혁을 감행했을 때 울려했던 백성들의 환호를 정도전은 똑똑히 기억했다. 신돈 개인의 교만과 도덕성 실추와 더불어 수구 세력의 반격을 거쳐 신돈이 몰락하고 그 개혁이 끝장나버리는 것도 보았다. 이미 고려 문벌 사회는 개혁을 감당할 여력도, 추진할 능력도 상실하고 있음을 정도전은 절감했을 것이다. 그의 선택은 역성혁명이었다. 동북면의

실력자 이성계를 찾아가 “이 군대로 못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농칠 때, “단지 썩지 않을 사문이 있다면(只消不朽斯文在), 후세에는 당연히 정씨 사람 나오겠지(後日當生姓鄭人)라고 스스로의 역사적 위치를 자임할 때, 그는 이미 새로운 체제를 계산하고 있었다. 백성을 위한 나라, 백성을 근본으로 한 나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 이는 조선 건국 후 정도전이 쓴 <조선경국전>의 서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서장의 제목은 정보위(正寶位)다. 즉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함에 관한 것이었다.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권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정도전은 올바른 정치의 핵심이란 올바른 정권을 세운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정도전을 위한 변명, 조유식 저, 휴머니스트) 그 서장에서 정도전은 민본주의 사상의 고갱이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민심을 얻으면 민은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민은 군주를 버린다. 민이 인군에게 복종하고 인군을 버리는 데에는 털끝만큼의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사심을 품고서 구차하게 해서도 안되고, 도를 여겨 명예를 구해서도 안된다. 그 얻는 방법은 역시 인(仁)으로써만 가능하다. 인군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시키는 마음씨를 자기의 마음씨로 가지고 차마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씨로서 정치를 행해야 한다.”

‘백성들은 군주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버리기도 한다’는 맹자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며,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설파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면 정도전은 ‘인군에게 복종하고 인군을 버리는 데에는 털끝만큼의 차이 밖에 없다’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군주 개인이 아니



라 그 군주가 섬기는 백성들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고 반포한 즉위조서 역시 정도전의 숨씨였다.

“하늘이 백성을 내면서 통치자를 세우는 것은 백성이 잘 살도록 보살피고 편안히 다스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도리를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 인심이 따르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의사가 가고 오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 달렸다.” 또 그는 결코 ‘어진 임금’에게만 의존하며 착하게 사소서 어질게 다스리소서 충언만 하는 신하를 마다했다. ‘군왕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군왕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군왕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게 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왕은 세습되지만 재상의 자리는 경쟁과 경험을 거쳐 등용되는 이가 많는다. 이 부분에서 왕이 될 야심에 그득했던 태종 이방원과 부딪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지만 국왕의 권력에 의지하기보다는 능력이 입증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던 정도전은 입헌군주제의 단초에 가까운 사상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정치적 포부는 일단 좌절되었으나 세종 대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 속에 이룩된 문화적 황금기로 구현됐다. 역적으로 단죄됐고 본인만큼은 조선 말기에 이르도록 신원되지 않았음에도 초기의 명신 신숙주가 남긴 한 마디는 민본주의 정치가 정도전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개국 초에 무릇 나라의 큰 규모는 모두 선생이 만들었으며 영웅 호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선생만 한 사람이 없었다.” ㉞



민생을 위한 백년정책 토론 대동법



극단으로 치닫은 방납의 폐단
조선의 세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받아들인 조·용·조(租庸調) 체제를 근간으로 했다. 조(租)는 전세(田稅) 곧 토지수확물을 일정 비율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었고 용(庸)이란 군역, 요역 등 직접 사람이 나라 일에 나서는 의무를 뜻했고 조(調)란 공납(貢納) 즉,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방식의 세금이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 세 시스템이 와해 지경에 이르게 되거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의 경우는 그 폐해가 극심했다. 8도에서 바쳐지는 공물의 내역을 한 번 들어

다보자. 꿀, 밀, 잣, 감, 오배자, 겨자, 모과, 호도, 배, 대추, 밤, 느타리, 여우 가죽, 살쾡이 가죽, 호랑이 가죽, 돼지 가죽, 곰 가죽, 여우 꼬리, 물고기, 전복, 홍합, 종이, 질그릇, 사기그릇 등등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이로되 의식주에 소요되는 광범위한 품목들이었다. 문제는 이 특산물이 지천으로 나는 것이 아니었고 전문적으로 구하고 다녀야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다는 것. 또 1년 내내 논밭에 매달리고 하늘 바라보고 비 기다리고 별 내리쬘면 김매야 하는 농민들이 이 특산물의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거기에 전혀

나지도 않는 특산물을 부과 받는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방납(防納)이다. 즉 공납을 납부해야 하는 백성들 대신 공물을 마련해서 나라에 내는 대신 댓가를 받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다. 농민들은 어렵게 공물을 구하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잇속을 차리기 위해 방납에 종사하는 방납인이 정직하게 공물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



한 일일 뿐이었다. 모든 이익의 디딤돌이자 귀착지이자 증폭지는 관(官)이었다. 각 지역의 탐관오리들은 이 방납인들과 너무나 쉽게 결탁했다. 심지어 백성들이 방납을 거부하고 공납품을 구해 바치면 질이 낮거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물리치기도 했다. “어허 왜 쉬운 일을 어렵게 하고.” 방납인으로 활개를 친 권세가의 하인이거나 중앙 관청의 서리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지방의 공납품에 퇴짜를 놓고 방납인의 물건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수작을 부렸다. 점차 조선의 조세 제도에서 토지세를 말하는 조(租)의 비중은

줄었으나 공납과 잡역(군역, 요역)을 대신해 바치는 세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실학자 유형원의 말을 들어보자. “아무리 풍작을 이뤄도 거의 하하년(下下年 : 소작이 좋지 못한 해)로 치기 때문에 전세가 결당 4두를 넘는 법이 없으나 공납과 잡역은 종류가 많아 가벼운 경우도 20두, 무거우면 70~80두에 이른다.(17세기 대동서의 길, 민음사)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이 방납의 폐단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평 한 마리를 바치는데 쌀 8말, 생선 한 마리를 바치는데 쌀 10말의 방납가를 물어야 했다.”(위의 책)

조선을 구해낸 원동력, 대동법
이 폐단 앞에서 양심적 관료들 역시 치를 떨었고 어떻게든 모순을 해결해 보고자 했다. 역사 속에서 이 노력은 ‘대동법’의 역사로 육화된다. 그 핵심은 방납을 폐하고 쌀로 공납을 대신한다는 것이었다. 공납의 폐단은 종종 때 조광조가 제기했고 대동법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율곡 이이였다. 그리고 유성룡, 이원익 등 당대의 명신들이 대동법 실시를 주창했으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다름 아닌 기득권자들의 벽이었다. 방납인과 결탁한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고 토지 소유에 따

라 세금을 물게 되는 대토지 소유자들 또한 반대했다. 특히 지주층이 강력했던 하삼도, 즉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의 반대는 극심했다. 전라도 지역에 대동법 실시 확대를 주장했던 이원익이 스스로의 뜻을 꺾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반대 명분을 갖다 붙이든 대동법이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분명하지만 허약한 근거를 가지고 평생의 과제처럼 대동법을 짊어지고 살았고 끝내 조선이라는 허약한 집의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잠곡 김육이다.

그는 어려서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전란을 겪는다. 몇 개 도를 떠도는 피난살이 끝에 부모를 잃었고 어린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그래서 10대 후반이면 장가를 가던 시절, 스물을 훌쩍 넘기고서야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또 광해군 집권기에는 벼슬을 버리고 그의 호가 된 가평의 잠곡 마을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다. 마치 정도전이 나주 거평 부곡에서 농민들로부터 삶의 지혜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동기를 얻었듯 김육 또한 죽을 뻔 했다고 본인 스스로 회고한 인생 초년을 거치며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고 그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평생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애물제인(愛物濟人)” 즉, 만물을 사랑하여 사람을 구제한다는 좌우명을 평생에 담고 살았던 그가 관직에 올라 수십 년 일로 매진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

“대동법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에 두루 행하지는 못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시행해서 이미 힘을 얻었습니다. 또 충청도 전라도에서 시행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태생이 부



지런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숯을 구워 한양에 내다 팔며 가족을 부양하던 때, 40리 길을 새벽같이 걸어 동대문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가 바로 김육이었다. 그 부지런함으로 김육은 악작같이 반대파에게 대항했고 왕이 귀찮아할 만큼 매달렸다. “삼남에는 부호들이 많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영을 시행하는데 마땅히 소민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 어찌 부호들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편리한 법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고집불통이 문제라고 혀를 찰 만큼 김육은 대동법에 목숨을 걸었다. 그에게는 이 일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라든 된 것 같았다. “내 방안이 쓰이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채택되지 않으면 노망든 사람의 허튼 수작에 불과할 것이니 이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며 백발을 쓸어내릴 때에는 아마 임금이 기가 질렸을 것이다. 유언까지도 대동법이었다. “신의 병이 날로 깊어만 가서 실낱같은 목숨이 얼마 못 버티고 끊어질 것 같습니다. 신이 만약 죽는다면 하루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져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가 죽

기 직전까지 신경을 쓴 곳이 바로 곡창지대 전라도였다. 그는 자신이 믿는 이를 감사로 추천하면서 호남의 대동법 실시에 대한 집념을 보였다. 효종이 이미 그렇게 했으니 몸이나 돌보라며 채근할 만큼 그는 열정적이었다. 마침내 그가 사망한 직후 조선 제일의 곡창 전라도에도 대동법이 실시된다.

백성에게 ‘밥은 하늘’이라고 했다. 제도의 모순과 권력의 착취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그라져가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대동법은 타들어가는 목을 적시는 한 줄기 소나기였고, 동시에 무려 100년에 걸쳐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설득과 노력으로 확대됐던 대동법은 그레도 기득권보다 백성들의 삶의 개선에 방점을 찍었던 조선의 민생(民生) 정책의 힘을 보여 주었다. 초기에는 완강하게 대동법을 반대했던 우암 송시열도 “해 보니 좋았습니다.”라며 임금에게 머리를 숙였던 것은 그 한 단면이리라.

무엇보다 대동법은 17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닥친 소빙기, 그 와중에 들이닥친 경신대기근(1670~1671)에서 조선을 구해낸 원동력이 된다. 냉수해와 병충해와 가뭄이 동시에 들이닥쳤던 최악의 대기근 속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조선의 행정력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그 저력의 근간이 바로 대동법이었다. 현종 14년 11월 전 사간(司諫) 이무의 보고를 들어보자. “대동법 이전에는 농지 한 결(結)에 쌀을 60두씩 바쳐도 부족했지만 대동법 이후에는 한 결에 10두씩만 내어도 남습니다. 만약 대동법을 혁파한다면 백성이 굶주리고 흩어져도 구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2009.7.5 중앙선데이, 이덕일). 그 조선을 굶어보면서 김육은 하늘에서 쌀을 구르고 있었을 것이다. “조금만! 조금만 더 개혁을 했더라면!”^㉔



광장민주주의 역사적 기원 구한말 만민공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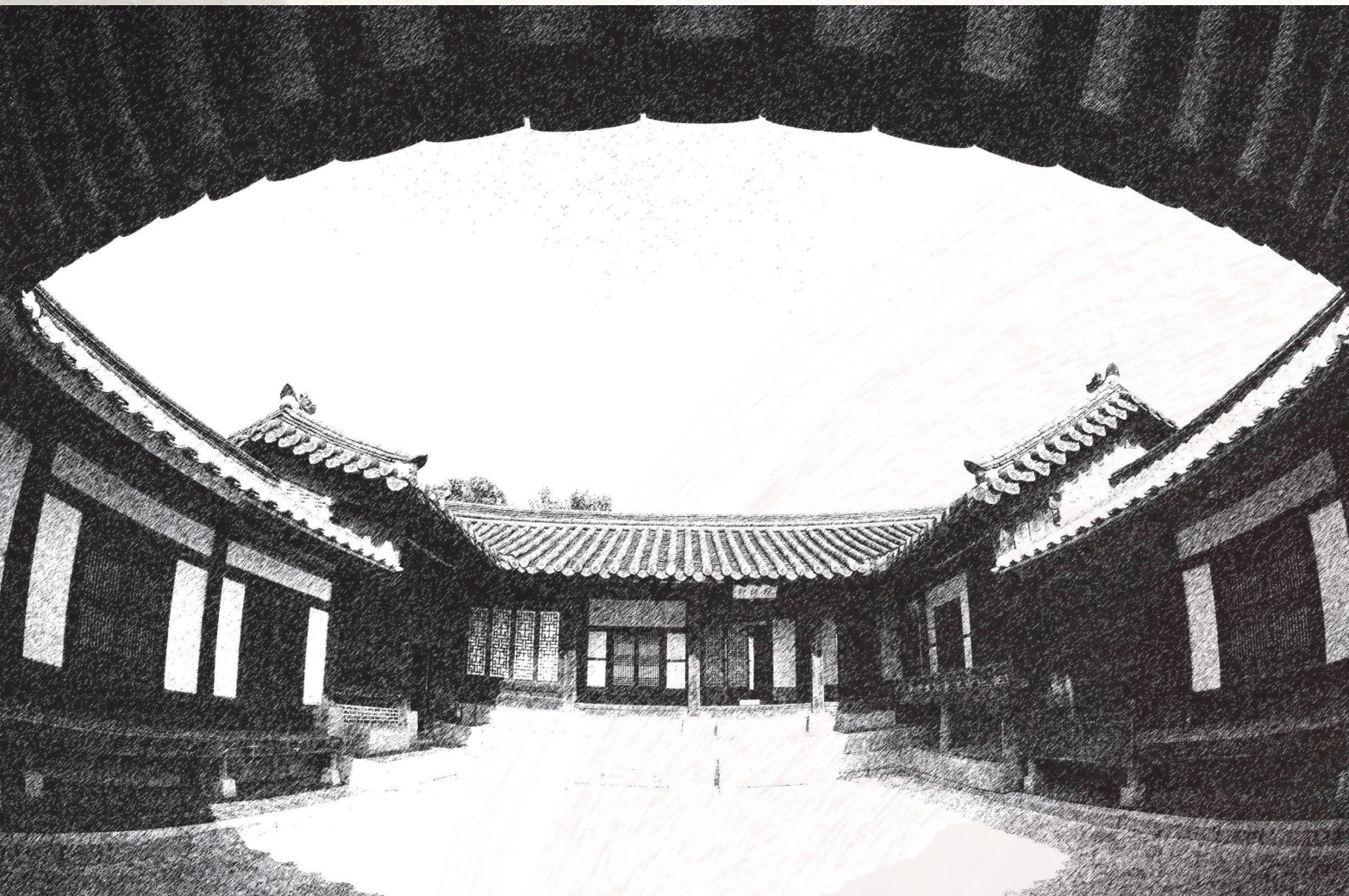
자신의 뜻을 모은 백성들
대한제국 광무 2년, 즉 1898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 갑신정변이나 을미사변처럼 시험 출제율 높은 사건들이 일어난 해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에 못지않을 정도의 중대한 움직임이 벌어졌던 격동의 한 해임은 분명하다. 무슨 의미인가? 수천 년간 나라를 시키는 대로 농사짓고 세금 바치고 부역하고 군대 갔던 양순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모으고 시위로 정부를 압박하며 나라의 앞길을 열정적으로 토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말로는 하늘(失)이고 군주를 뒤집을 수도 있는 물이었지만 실상은 권력자들 양반님네들의 봉에 불과했던 민(民)이 그 뜻을 모아 외치기 시작했던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였다.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거리는 부산했다. 단

발에 양복 입은 개화 신사부터 아직 상투에 갓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머리를 땀은 소년들, 나무꾼들, 장사치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종로 거리로 몰려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발걸음과 표정은 단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당시 서울 인구는 20만을 밑돌았지만 종로 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의 수는 1만을 넘어섰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 인구 천만 잡고 50만의 인파가 종로를 뒤덮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러시아 놈들에게 나라를 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우렁차게 연설을 시작하자 종로 바닥은 그대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난무하는 집회장이 되어 버렸다.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피했다가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제위에 오르는 했지만 왕이 황제가 되고 왕국이 제국이 됐다고 달라진 것은 없었

다. 열강들은 다투어 대한제국의 이권을 뜯어갔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베베르 공사는 그나마 온건한 편이었다. 그 뒤를 이은 스페이에르 러시아 공사는 더욱 거침이 없었다. 이 무렵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오늘날의 부산 영도(당시 이름 절영도)였다. 러시아는 이 섬을 조차하여 자신들의 해군 함대의 석탄 저장소를 두고자 했다. 독립협회 등 한국인들은 이에 반발했고 잇단 성토대회를 열었지만 친러파가 장악한 정부는 절영도(영도) 조차를 허용할 기세를 보였다. 거기에 한러은행이라는 것이 생겨서 러시아의 경제적 침략까지도 염려되는 국면에 이르자 독립협회는 이대로 가



“만민공동회는 꽃을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실패로 끝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민공동회의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주적 열기는 뜨겁고 거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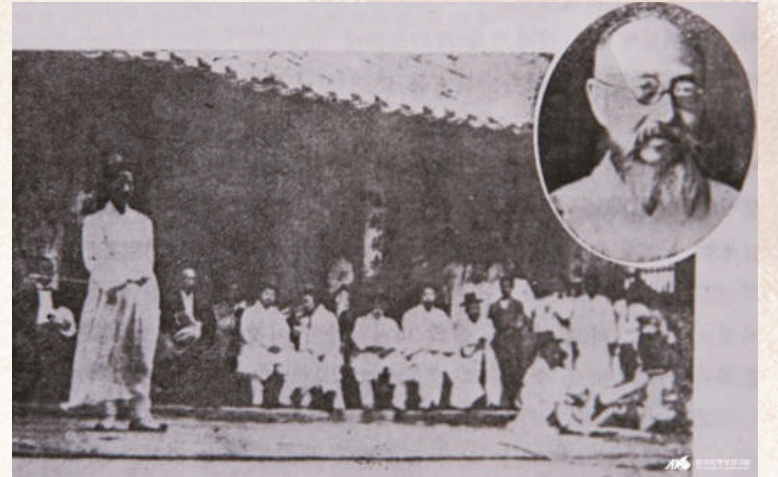


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대규모 집회를 조직한다. 이것이 만민공동회의 시작이었다. 현 공렬, 홍정후, 이승만(우리가 아는 그 사람) 등이 백목천 파는 가게 다락에서 사자후를 도했고 의장은 쌀장수 현덕호였다.

군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연설에 동조했고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대한제국 정부와 대한제국을 만만한 호구에 깨지 못한 은자(隱者)의 나라로 보고 있던 서양인들 모두가 경악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놀란 사람들은 시민들 자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틀 뒤 3월 12일에는 또 수만 명이 몰려 러시아를 성토했다. 자주독립을 외쳤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갔다. 시위대 군인들이 해산을 시도하자 돌을 던져 그들을 물리쳐 버린 것이다. “절영도 조차 반대! 아라사눔들 물러가라.” 깨어있는 시민은 언제나 무능한 정부에 위협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압박에 떠밀려 절영도 조차를 거부했고 러시아는 요동으로 석탄 저장소를 옮겨야 했다. 한 번 자신의 위력을 인식한 대중만큼 용감한 존재도 드물다. 서울 시민들은 연일 토론회를 열며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며 자주독립의 미래를 열변에 실었다. 초기에는 독립협회가 주도했으나 이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장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몇 달에 걸쳐 집회가 이어졌고 급기야 10월 1일에는 철야 시위가 시작됐다. 근대적 법제도의 실시와 간신배들의 퇴진을 내걸고 무려 12일 동안 시민들은 덕수궁 앞에서 철야하며 황제에게 탄원한다.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와 장작으로 기부하고 열정적인 시민들은 한뼘잠을 자며 그 시위를 지켰다. 결국 정부가 또 한 번 굴복한다. 박정양, 민영환 등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내각을 출범시킨 것이다.

만민공동회, 새로운 성공의 씨앗

그래도 만민공동회는 끝나지 않았다. 근대적 의회 설립과 간신배 축출 요구는 지속됐고 점차 격화됐다. 박정양 등 관료들까지 참여한 관



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그 개막 연설자는 뜻밖에도 백성이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백정이 대신과 나란히 연단에 올라 토해 낸 부르짖음은 이러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고 인민을 편하게 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차일(遮日: 천막)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자면 힘이 부족하지만 만일 많은 장대로 힘을 합친다면 그 힘은 매우 튼튼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관리와 백성이 힘을 합하여 우리 대항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합시다.” 전제군주로서의 권력을 포기할 수 없던 고종은 이미 만민공동회를 짓밟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6월 가랑 이미 독립협회에 맞선 황국협회를 조직해 낚였고 3차 만민공동회에서 결의되어 제출된 헌의 6조를 받아들이는 체 하면서 전국의 보부상들을 집결시켜 만민공동회를 습격한다. 이 와중에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했지만 11월 말 쏟아지는 초겨울비 속에서 서울 시민들은 감동적인 시위를 벌인다. 일반 농민, 나무꾼, 종로의 시전 상인들, 기생과 찬양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 심지어 결인과 아이까지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더 단호했다. 외국에게는 갈대

보다 못하게 휘청거렸던 정권이지만 자국 국민들의 개혁 호소에는 철권을 휘둘렀고 인간질을 서슴지 않았으며 제 백성을 사주하여 제 백성을 쳤다. 백성들이 그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충성을 다짐했던 군주는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위해 백성들의 뒤통수를 쳤다. 보부상들을 조직한 황국협회원들을 동원,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던 것이다. 만민공동회는 실패로 돌아갔다. 자신의 백성을 패배시킨 군주, 내무부부터의 개혁의 싹을 잘라버린 군주의 나라는 7년 뒤 외교권을 잃었고 12년 뒤에는 나라 자체의 이름이 없어지고 말았다.

만민공동회는 한창 흐드러지게 민의의 꽃을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기득권에 눈이 먼 황제와 보수파들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변화를 거부하며 민의를 짓밟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실패로 끝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실패는 경험으로 남으며 경험은 반성과 교훈 속에 새로운 성공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만민공동회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제국 국민들의 민주적 열기는 언급했듯, 서양 사람들을 대경실색케 했을 정도로 뜨겁고 거셌다. 조상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는 꽃만 피우는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어 후대에 물려줄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㉞

백정들의 가슴 속에 피어난 의문 한 자락

‘백정’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누구에게 함부로 쓸 수 없는, 조선 왕조 말기 심지어 개화기 이르러서도 백정이란 불가촉천민과도 같은 천인 집단이었다. 그들은 상투를 틀지 못했고 부녀자는 비녀를 꽂지 못했다. 기와집과 비단옷은 금물이었고 그 좋은 혼례식날도 말을 타다가는 봉변을 감수해야 했다.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양반 앞에서 꿈쩍도 못하고 설설 기던 농민들까지도 백정이라면 흰눈부터 뚫다. 심지어 기생들까지도 백정을 별레보듯 했다.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어 백정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공식적으로는 종식됐지만 나랏법이 바뀌었답시고 백정이 큰 갓 쓰고 길을 나서 다가는 뉘 집 명석에 돌돌 말려져 누구 뭉둥이에 유명을 달리할 지 몰랐다. 심지어 일제가 들어선 뒤에도 그랬다. 법적으로는 평등했지만 호적이라 할 민적(民籍)에는 도한(屠漢), 즉 도살업하



신분제 타파를 위한 최후의 저항 형평사 운동

는 자라는 뜻의 굵은 글씨가 항상 박혀 있었다. 경상도 하고도 진주는 전통 깊은 도시였다. 역으로 말하면 고정 관념이 낙락장송처럼 뿌리 박혀 있는 동네였다. 진주에 최초로 생긴 기독교 교회인 봉래 교회에서 일이 벌어진다. 처음 교회를 개척한 커틀 선교사는 예수는 믿겠는데 백정은 인간이 아니니 내보내라는 희한한 신자들 앞에서 아연실색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따로 예배를 보았는데 1909년 부임한 리알 선교사는 이를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백정들과 일반인들과의 동석 예배를 추진한다. 백정들이 주뻗뻗 예배당으로 들어오자 4백명 교인 중 3백명이 아우성을 치며 일어난다. “내사 백정하고는 같이 천국 안갈끼라” 리알 선교사도 보통내가 아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버텼다. 그러나 때로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억지에 진다. 리알 선교사는 결국 우매한 백성들에게 굴복한다. 49일간의 분쟁 끝에 결국 종전처

럼 따로 예배드리는 것에 동의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진주 지역에 적잖은 파문을 던진다.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를 부르짖는 목사의 설교를 들은 일반인들이고 백정들이고 가슴속에 의문 한 자락이 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백정이 뭐길래. 소 잡는 것이 그렇게 죄인가. 백정 없이 진주냉면 육전은 무엇으로 만들며 진주비빔밥 고명의 하이라이트 육회는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멸시는 받았을망정 새롭게 들어서기 시작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력을 쌓은 백정 집단과 역시 과거와 단절한 청년 지식인층 사이에는 점차 연대의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이 터졌다. ‘부유한 백정 이학찬은 아들을 공립학교에 여러번 입학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거절당하고 할 수 없이 100원을 기부하고 진주 제3야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그러나 주변 학생들의 구박에 못이겨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에

입학시켰으나 여기서도 쫓겨났다. 그 후 진주에 사립 일신고등보통학교(日新高等普通學校)가 설립되어 구장으로부터 노력봉사에 응해달라는 전갈을 받고 노력봉사를 하면 입학이 보장되는 줄 알고 다른 70여 명 백정들과 일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창립위원회측으로부터 백정은 입학시키지 않겠으며 부역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http://cafe.daum.net/historystory/dta/26?docid=YkBIHdta2620071023160032>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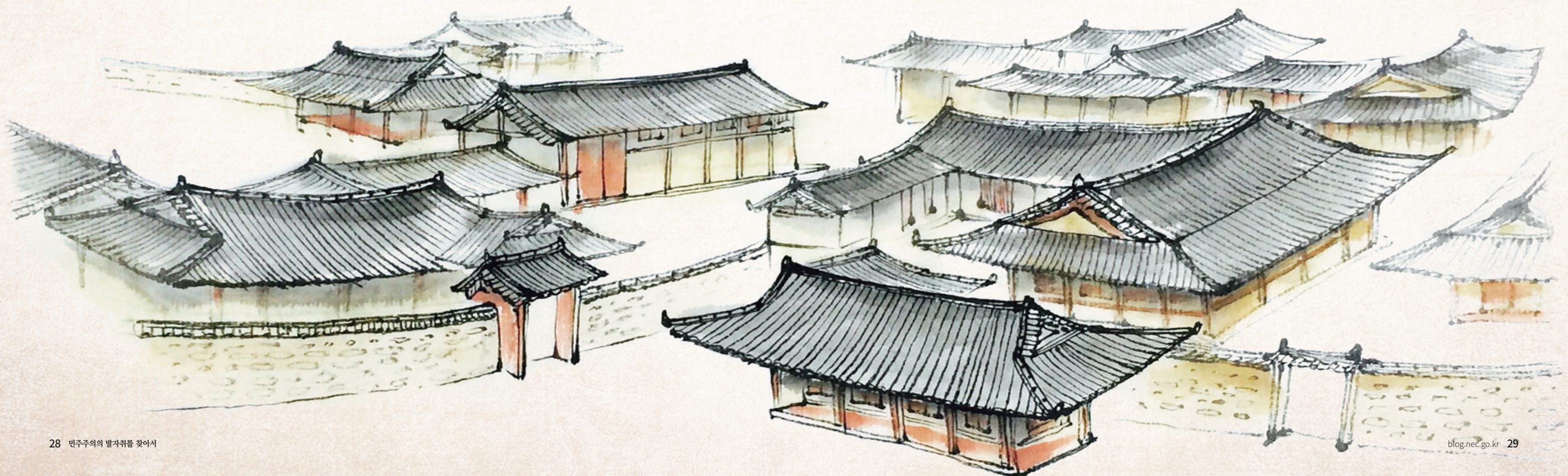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기본, 인간의 존엄성

이 사건을 기회로 뜻있는 이들이 손을 잡는다. 1923년 4월 24일 마침내 ‘형평사’라는 우리 역사에 매우 소중한 이름의 단체가 그 깃발을 올린 것이다. “우리들(我等)의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는 것”임을 고창하며 형평사는 “전국의 형평 계급아 단결하

라”고 부르짖는다. 그 대표적 인물로는 백정 출신 장지필도 있었지만 주목해야 할 사람은 양반 출신 ‘강상호’다.

그는 “백정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며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인들끼리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식민통치를 돕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호소한다.(서울신문 2004.4.10) 백정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거부하자 그는 아예 백정의 자식 두 명을 양자로 들여서는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학교로 데려다 주며 차별 철폐를 외친다. 일찍이 국채보상운동을 진주에서 주도했고 3.1운동을 주도하여 옥살이도 했고 진주 정촌면 가좌리에 살 때는 마을 사람들의 세금까지 대신 내 주었던 그는 원래 진주의 천석꾼 부자집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많은 재산을 “인간은 저울처럼 평등하다”(여기서 형평의 이름이 나온다)는 신념에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천석꾼 재산은 밑빠진 독으로 고스란히 빠져든



다. 해방 이후 그는 자식들 교육을 못 시킬 정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해방 뒤 인민위원장(다른 직책이라는 설도 있다) 같은 좌익 쪽 감투를 썼던 관계로 남아 있던 재산까지 반공 세력에게 몽땅 뜯겼다고 한다. 그가 고통 속에 1957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을 때에야 사람들은 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사람들은 알게 된다. 그의 장례는 전국에서 모여든 백성 출신들이 치렀다. 형평장(전국축산기업조합장)으로 치러진 장례는 끝없는 만장의 행진으로 이어졌고 진주 시내에서 장지까지는 사람들의 홍수로 넘쳐났다. 그때 옛 형평사원에 의해 입힌 조사를 인용해 본다. 백 마디 말보다 강상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선생님만은 그 시대의 속칭 양반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의 명예를 포기하고 전 재산을 희사해 가면서 우리들의 고독한 사회적 지위의 인권 해방 계급 타파를 위하여 선봉에 나서서 오직 자유 인권 평등과 우리들의 지학의 개방을 부르짖으시며 우리만이 당해 오던 50만의 동포를 위해 주야고심 투쟁하지 않으셨습니까. 위대하십니다. 장하십니다.” 아마 그 장대한 장례 행렬을 굽어보며 강상호는 그래도 자신의 삶이 값진 것이었음을 재삼 깨닫고 편히 눈을 감았을 것이다. 아니 그 값을 따질 인격이 아니었으며, 그 일로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엿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고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에 기뻐하며 웃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직책 높은 사람이나 극도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나, 천하에 다시없이 잘난 사람이나 지상에 견줄 데 없이 못난 사람이나 하늘이 내린 인권의 소유자이며,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역할에 따른 차이 외에 본원적인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남도의 한 거읍에서 일어났던 형평사 운동, 그 정신과 의미는 그래서 우리 역사에 한없이 소중한 보배로 남는다. ㉞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돈이 많고 직책 높은 사람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천하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모두 하늘이 내린 인권의 소유자이며, 본원적인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0.05mm의 펜촉으로 50만 번 이상의 선을 그어 완성한 김영택 화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펜화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뛰어왔습니다.

국민이 주신 믿음과 사랑,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더 멀리보고, 더 부지런히 뛰는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여기에 자유, 공정, 화합이라는 참된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어 '아름다운 선거'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는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